

『하루 한 줄, 나를 지키는 필사책』 체험해 보기



책 소개

『하루 한 줄, 나를 지키는 필사책』은 다가올 내일에 대한 불안을 덮고 꿈을 키워 갈 청소년을 위한 필사책입니다. 입시, 취업 등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맞닥뜨리게 되는 두렵고, 외롭고, 막막한 순간에 다정한 위로를 건네 줄 책이지요. 『완득이』 『위저드 베이커리』부터 『페인트』 『유원』 『울의 시선』까지 독자들이 사랑한 창비청소년문학의 대표 작품에서 문장을 엄선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타인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때, 진로와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때 등 다양한 상황에 맞춤형 문장들이 용기와 위로를 전할 거예요. 내 마음과 닮은 문장들을 필사하며 문학의 아름다움을 음미하다 보면 자연스레 마음을 다잡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을 것입니다. 더불어 다정한 문장을 내어 준 소설과도 한층 가까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필사의 쓸모

필사(筆寫)는 베끼어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의 글을 그대로 옮겨 쓰는 것에는 어떤 의미와 효용이 있을까요? 필사에 관한 백온유 소설가의 글 일부를 소개합니다.

내 영혼에 전념하는 시간

백온유

(중략)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지금도 필사를 즐긴다.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을 기억하고 싶어서, 내가 느낀 감동을 오래 간직하고 싶어서, 문장의 미학성에 감화되어서, 삶이 너무 막막할 때 이곳이 아닌 다른 세계로 도피하고 싶어서. 빠른 손목을 돌리며 페이지를 채워 나간다.

과거에 내가 쓴 필사 노트를 보다 보면 이런 시련에 놓일 때가 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문장을 필사해 놓고 그것이 어느 작가의 어떤 책의 몇 페이지인지 적어 두지 않은 것이다. 미래의 내가 그 문장의 기원을 찾아 우주를 헤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것 같다. 운 좋게 책 제목을 찾을 때도 있지만 끝내 찾지 못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 과거의 천진함과 무책임함에 분개하다가 책장을 반복적으로 훑으며 조바심에 안달을 낸다. 그 과정을 모두 거친 후 체념의 단계에 진입하면 필사된 문장에만 집중하게 된다. 작가가 의도한 주제와 맥락이 사라진 문장을 가만히 읽다 보면 놀랍게도 문장이 오롯이 홀로 빛나며 나를 비춰 준다. 내가 한 자 한 자 옮겨 적은 문장은 그 문장이 피어난 책의 역사와 무관하게 나의 영혼을 이루는 하나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음을 깨닫게 된다.

시간이 흘러 예전보다는 선명한 마음으로 필사의 쓸모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나와 연결된 세상이 소란스러워 마음이 어수선했을 때 활자를 피난처로 삼는 일, 반듯하고 또렷한 획을 긋는 것에 몰두하는 일이 정말 시간 낭비일까. 필사의 시간은 영혼에 전념하는 시간이다. 나를 스치고 지나간 이상야릇하고 미세한 감정을 노트에 옮기며 천천히 되새기는 것이다. 내가 선택한 문장은 어떤 방식으로든 내 삶에 기여하며 영향을 미친다. 필사는 미래의 내게 보내는 편지이고 과거의 내게 보내는 위로와 격려다.

샤프심이 닳아 없어지는 속도로 나는 서서히 회복될 것이고 회복된 후에는 이전보다 더 단단해질 것을 믿는다. 이런 이유로 나는 또 견고한 문장 위에 내 가냘프고 연약한 영혼을 포개어 놓는다.

(『하루 한 줄, 나를 지키는 필사책』 8~9면)

『하루 한 줄, 나를 지키는 필사책』의 구성과 활용법



① 필사를 꼭 책의 순서대로 진행할 필요는 없어요. 차례를 살피며 오늘의 나에게 필요한 문장이 어디에 있을지 찾아보세요. 지금 나의 마음을 잘 모르겠다면 ‘마음 발견 테스트’(12면)를 활용해 보세요.



2 주어진 문장 전체를 필사해도 좋고, 강조 표시한 추천 문장만 필사해도 좋습니다. 창비청소년문학 시리즈의 대표작에서 엄선한 문장들이 흔들리는 마음을 다독일 뿐 아니라, 문학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 줄 거예요.



4 필사를 마친 후에는 해당하는 문장의 번호를 찾아 ‘필사 습관 기록’(13면) 칸을 채워 보세요. 얼마나 진행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이 책에서 소개한 문장을 모두 필사했다면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은 문장들’(170면)을 꼭아 보세요.



6 나만의 문장을 수집하고 필사하는 노트(174면)로 활용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노래 가사, 나를 울린 영화 대사, 나를 다독이는 문장들을 수집해 보길 권합니다.



7 내가 읽은 책을 그림으로 하나씩 기록해 나가요. '나만의 독서 기록'(204면)으로 책장이 가득 차길 응원합니다.



필사 체험



01 휘청거리지 않고 날 수는 없어

“바람에 몸을 맡기면서도 때론 바람에 저항해야 하는데, 흔들리지 않고 휘청거리지 않고 날 수는 없어. 비오가 아니라 우리 중 그 누구라도, 하다못해 작은 새나 벌레라도 날개를 가진 자라면.”

그 바람에 몸이 산산조각 나는 것이 아니라면. 루는 나뭇가지에 다시 스프르 걸터앉았다. 다가오는 비오가 난폭한 바람에 밀리며 허공에 그리는 곡선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숫자나 도형처럼 보였다.

“무섭더라도 그대로 지켜봐 줘. 그게 비오의, 우리의 비행이니까.”

구병모 『버드 스트라이크』 174면.

오늘의 단어

흔들리다 동사

- 어떤 일이나 말에 사람의 마음이 동요되거나 약한 상태가 되다.

Date.

오늘의 한 문장

예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는 없어.



너만큼은 너 자신을 떠나지 마

“너만큼은 너 자신을 떠나지 마.”

그 말이 먹먹히 가슴을 울렸다. 말이 이어질 때마다 이도해 말고도 또 다른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너는 의미 있는 사람이야.”

그제야 주체할 수 없는 말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 있었다. 그 말들은 내 마음에서 나왔다. 내 마음 깊은 곳에 묻혀 있다가 이도해의 입을 통해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이었다.

김민서 『울의 시선』 172면.

오늘의 단어

지우다 **동사**

- 생각이나 기억 따위를 의식적으로 없애거나 잊어버리다.

Date.

오늘의 한 문장

예시 못 하겠다는 생각은 지우고 도전해 보는 거야.



03 네가 느긋해지면 좋겠어

“김여울, 속상하지? 그런데 솔직히 시원하지 않냐? 계단 맨 위에서 굴러떨어질까 봐 조마조마했는데 막상 한 발 내려오니 아무렇지도 않잖아? 난 너 2등 했다니까 안심이 되더라.”

“놀리냐?”

“그게 아니고. 너를 당기고 있던 팽팽한 고무줄이 좀 느슨해진 느낌이랄까? 그동안 옆에서 보는 것도 힘들었거든. 원래 1등을 하면 2등도 할 수 있고, 2등을 하면 1등도 할 수 있는 거지. 나는 이번 기회에 네가 느긋해지면 좋겠어. 중학교 때부터 내내 긴장하며 살았잖아.”

김중미 『결에 있다는 것』 245~246면.

오늘의 단어

느긋하다 형용사

- 마음에 흡족하여 여유가 있고 넉넉하다.

Date.

오늘의 한 문장

예시 가끔은 마음을 느긋하게 먹을 필요가 있다.